

공수처 본격가동까지 두달... '1호 사건' 관심

차장 인선·인사위원회 구성 등 난항 계속될 듯 검사·수사관 공모... 현직 검사 파견받지 않기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지만,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안인 만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앞으로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정 등 기본적인 조직구성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등 여러 걸림돌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빨라도 오는 3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을 파견받고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차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김 처장이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면 당장 이날 제청하는 것도 가능한 셈이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은 검찰·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법조 경력에 충분한 인물을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청 이후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성향과 수사 능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처 검사를 뽑게 될 인사위원회는 차장과 차장, 차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위원 추천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1

~2주 내지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사위원 구성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검사 선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결 조건은 재직 위원 과반수 찬성이지만 김 후보자는 반대하는 위원들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의결에 앞서 검사와 수사관은 공모를 진행한 뒤 면접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23명 이내,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두며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공수처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수처가 첫 칼날을 겨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표적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공수처가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른바 '사건 문개기'를 할 우려도 제기했다. 정계 인사 연루설이 불거진 라인·유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도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야권에서 거론된 바 있다.

반면 여당 측은 김병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북, 호남권 광역철도망 공동안 만들어야”

조오섭 국회의원 강조

달빛내륙철도 1단계 구간 연계 등 광주·전남·북의 호남권 광역철도망 공동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지역 현안 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경쟁 보다는 협력과 상생 계획을 먼저 짜야 한다는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21일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일한 공동안을 마련해

야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요청한 광역철도망 사업은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달빛내륙철도 등 총 4개 사업이다.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경우 광주시는 상무역~서광주~혁신도시~나주역 구간을 제출한 반면 전남도는 서광주~남평~혁신도시~나주역~평동역 구간을 계획하고 있어 서로 엇갈린 안으로 광역철도망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 광주시는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기점을 상무역으로 삼아 별도 노선을 계획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노선(백운광장~효천지구)에서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를 구축하는데 보다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노선 조정을 통한 단일안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광주~나주~화순의 광주~전남 광역철도망에 그치지 말고 달빛내륙철도의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 구간을 광역철도망으로 연결해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권 도전 나선 박용진 국회의원



“기득권 정치세력에 맞서 새로운 변화 이끌 것”

국민 요구 시대정신은 공정·민생 불평등·불공정 없는 사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박용진(50·서울 강북을) 의원은 21일 "기득권 정치세력에 맞서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박수를 받을 정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진영 논리와 위선 등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미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박2일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그는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 변화를 위해 자신감과 역동성을 불어넣고, 젊은 개혁 정치인으로서 혁신을 통해 정권재창출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차기 대권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4월 보궐 선거를 승리하고 난 뒤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 등

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기 대권 도전 배경은?
▲대한민국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변화와 도전은 정치가 선도해야 하는데, 낡은 정치가 이를 막고 있다. 이는 진영논리와 위선, 내로남불이라는 기득권 정치권 탓이다. 이제는 젊고 혁신적인 에너지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그동안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왔고, 이제는 한국사회를 희망으로 만들어 갈 기회인 만큼 지금 젊은 개혁적인 정치인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내 과감한 소신 발언으로, 극성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도 있다.
▲정치인은 당장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 소신을 정직하게 말하고 평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위선과 거짓말은 국민이 가장 싫어

한다. 내면이면 감싸고 상대에게만 엄격하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지.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은 당에 오히려 약이 된다.

-당내 비주류에, 체급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챔피언은 도전자였다. 체급과 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신은 국회의원 몇 명이 결정하지 못한다. 계보나 계파정치가 힘을 쓰지 못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언급되는 정치인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후보였거나, 지난 20년 한국정치의 주류였다. 새로운 도전자는 저 한 명 뿐이다.

-차기 대선에서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민생'이다.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 민생문제 해결이 정치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은.
▲민주당 후보 두 분은 정책적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호감도도 높은 정치인들이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과 민주당에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후보들이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일시적인 실망감을 씻어낼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기관 이전 및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호남 배려는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광주의 'AI중심도시'는 방향이 좋다. 하지만,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자리를 찾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AI관련 기업들이 인재를 찾아 광주로 회사를 옮기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동구 대인동, 싼 빵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
문의. 010-3605-5000